

공유 역사의 시각으로 본 ‘리질리언트 바이 디자인’*

임한솔* · 배정환**

*서울대학교 대학원 협동과정 조경학 전공 박사과정 · **서울대학교 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 교수

I. 서론

변화와 교란, 복잡성을 강조하는 리질리언스(resilience) 개념은 안정과 평형을 강조하는 지속가능성 개념과 달리 현재를 통시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과거에 주목한다. 현재의 자연과 사회 생태적 시스템의 복잡성은 과거와 강하게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과거를 돌아봐야 한다(Constanza *et al.* 2007: 522). 시스템의 변화에 대한 통시적 고찰은 교란과 반응의 패턴, 마을의 가구 수나 특정 종의 수확률 같은 점진적 변수의 영향을 드러내며, 그 이면을 이해하는 것은 역사적 시스템의 역학(dynamics)이 현재를 이루어 온 방식과 미래에 미칠 영향을 깨닫게 한다(Resilience Alliance, 2007: 18).

본 연구는 2017년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을 대상으로 진행된 ‘리질리언트 바이 디자인(Resilient by Design)’ 설계공모에서 과거를 다룬 방식을 ‘공유 역사(shared history)’의 시각으로 살피고자 한다. 설계공모의 주최 측은 기후 변화라는 위기가 “자연과 우리의 관계, 우리 서로 간의 관계를 다시 상상하는 기회를 선사”하며, 장기적 변화를 위해 “공유 역사를 직면하고 의사 결정에서 사회적 평등을 중심에 두기를 요청”(Bay Area Resilient by Design, 이하 BARD, 2017: 7)한다. 공유 역사라는 용어는 설계공모의 여덟 가지 기본 원칙 중 두 번째인 “공유 역사와 오늘날 존재하는 생태적, 경제적, 사회적 취약점(vulnerability)을 다룸으로써 리질리언트한 미래를 위해 취약한 커뮤니티를 대비시킨다.”에도 등장한다. 다음에서는 먼저 ‘공유 역사’의 개념과 그 쓰임의 맥락을 살피고, 이를 토대로 주최측이 언급한 두 가지 관계에 적용해보으로써 ‘리질리언트 바이 디자인’에서 공유 역사의 발현 양상을 구체화해볼 것이다.

II. ‘공유 역사’의 개념과 사회적 의미

공유된(shared)이라는 수식어에서 가늠할 수 있듯 ‘공유 역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둘 이상의 주체가 필요하다. 유럽에서 활동하는 동일명의 프로젝트 그룹에 따르면 공유 역사는 “두 개의 다른 독립체가 역사의 어떤 부분을 서로 공유하는 것을 뜻한

다”(https://sharedhistory.eu/). 중요한 것은 복수의 주체가 역사의 어떤 부분, 즉 과거의 사건이나 시기, 공간을 함께 (그러나 다르게) 경험하고 기억하고 나아가 역사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복수의 주체와 동일한 과거라는 이 개념의 성립 조건은 ‘집단 기억(collective memory)’ 개념을 떠올리게 한다. 그러나 두 개념 사이에는 확연한 차이가 있다. 모리스 알박스의 ‘집단 기억’ 개념은 사회에 의한 기억의 재구성과 동질화에 주목한다(Halbwachs, 1950). 반면 ‘공유 역사’ 개념은 동일한 과거를 그리는 상이한 역사들에 주목한다. 공유 역사를 키워드로 내세우는 논고들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분쟁(Scham, 2005), 나이지리아 내전(Onuoha, 2016), 텍사스 남부 국경지대(Bowman, 2015)와 같이 영역의 중첩과 갈등을 다루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지배 엘리트가 그들의 입장에서 서술한 역사가 공식 역사로 인정되던 예전과 달리, 동시대 역사 서술과 교육 현장에서는 피지배계층이나 소수자 등 다양한 주체들의 관점을 주류 역사로 편입하려는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 가령 동독의 공산당이 역사 교육에서 하나의 관점만을 취했던 반면, 서독에서는 1970년대부터 학생의 서사 능력 혹은 역사적 능력의 촉진을 목표로 다양한 관점의 역사를 가르쳐왔다(이병련, 2014). 영국에서는 역사 교육에서 주변화 되어 있던 인종적 소수자 집단을 가시화하고, 나아가 양극화된 단선적 역사를 넘어서 복수의 역사 내러티브 구성의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다(박주현, 진재관, 2013)

‘공유 역사’란 하나의 사건이나 배경을 공유하는 둘 이상의 주체가 각자의 관점에 입각하여 쓴 역사의 공존 혹은 결합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공유 역사’의 발생과 적용에는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고, 지배 권력이 쓴 일방적 역사를 극복하려는 의도가 내재해 있다. 이주와 문화다양성의 문제를 어디에서나 볼 수 있고, 미디어를 통한 기억의 재구성이 각축을 벌이는 현대 사회에서 ‘공유 역사’ 개념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될 것으로 예상된다. ‘리질리언트 바이 디자인’에서 취약 계층과 사회적 평등을 ‘공유 역사’와 함께 언급하는 것도 이상의 맥락과 유관하다. ‘공유 역사’는 현재를 통시적으로 이해하도록 하는 동시에 다양한 주체와 관점을 고려하여 사회생태 시스템의 복잡성과 취약점을 파악하도록 한다.

*: 이 논문은 2019년도 정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기초연구사업(NRF-2019R1F1A1060431)의 성과 중 일부임.

III. '리질리언트 바이 디자인'에서 공유 역사의 발현

1. 자연과 인간의 공유 역사

'리질리언트 바이 디자인'의 공유 역사에서 가장 우선시되는 두 가지 대응 주체는 다름 아닌 자연과 인간이다. 자연과 인간을 연결된 시스템의 일부로 여기는 사회생태적(social-ecological) 시스템 개념은 리질리언스 논의의 핵심이다. 예측불가능성과 복잡적응계를 전제하는 리질리언스 세계관은 자연과 인간을 이원화 할 수 없고, 그 전모와 상호관계를 파악하기도 어렵다고 말한다.

'리질리언트 바이 디자인'의 진행 요강이자 기초 연구 성과 모음집인 Briefing Book을 보면 자연사와 도시사가 결합된 형태의 서술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BARD, 2017: 39-55). 특히 대상지에 인류가 등장한 이후의 자연 환경 변화는 도시/지역 개발사와 긴밀하게 연동하도록 서술되어 있다. 이는 전통적 자연사가 인류가 출현하기 이전의 고환경(paleoenvironment)을 대상으로 했던 것과, 전통적 도시사가 도시와 사회의 발달에 집중한 나머지 자연환경의 손상을 간과했던 것에서 벗어났다고 할 수 있다.

설계팀이 이상의 관점으로 연구를 심화한 후 설계안으로 발전시킨 사례도 있다. Public Sediment 팀은 세부 선정 대상지에서 골드러쉬 이후 150년 동안 있었던 퇴적 관련 주요 사건과 퇴적량의 변화를 그래프로 제시한다(Public Sediment, 2018: 14-15). 설계팀은 퇴적량의 회복을 목표로 제시하는 한편, 현재의 수로가 생태적 기능을 잃었기 때문에 과거의 셋강이 지녔던 사회적 기능을 박탈당하고 공적 논의로부터 멀어졌다고 진단한 후 해법을 제시한다(Public Sediment, 2018: 52).

2. 집단 사이의 공유 역사

'리질리언트 바이 디자인'의 주최측은 인종을 중심으로 취약 계층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소환하며, 사회적 평등을 강조한다. 주최측은 기울어진 운동장의 우위에 선 지배 계층에 대해 말을 야기는 대신 취약 계층이 처한 상황에 대해 적극적으로 발언한다. "공유 역사를 이해하는데 결정적인 부분은 시스템 상의 인종주의의 근원을 직면하고, 도시와 지역 시스템에서 소외의 지속적 재생산을 다루는 것이다. ... 사회적 불평등과 환경적 후퇴는 같은 근원을 공유한다"(BARD, 2017: 13).

주최측은 베이 지역의 토착민인 아메리칸 인디언에 대한 이해를 강조하며, "그들이 어떻게 질병과 학살, 이주, 박해를 야기한 수세기 동안의 정책으로부터 살아남았는가"를 살피고자 한다. 또한 "역사적 맥락을 고려할 때, 베이 지역의 토착민들에 대한 억압이 본래 그들에 의해 유지되었던 자연의 물리적, 수생적 경관에 대한 현재 진행형 억압과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인지하는 것은 중요하다"(BARD, 2017: 14)라고 말한다.

주최측이 인종 문제를 다루는 것은 리질리언스 전략의 측면에

서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최대의 효과를 내기 위해 집중과 구체화가 필요하다. 인종적 평등의 프레임워크는 개인, 집단, 구조적 인종주의 간의 차이를 명확하게 하고, 다른 소외 계층에 적용될 뿐만 아니라, 소외된 커뮤니티들을 효과적으로 연합하게 하는 이슈이다"(BARD, 2017: 18-19). 이러한 전략은 기성의 리질리언스 프레임워크(Arup, 2014)에서 제시한 포괄성(inclusiveness) 및 가외성(redundancy)의 덕목과 연결된다.

IV. 결론

'리질리언트 바이 디자인'에서 역사를 다루는 방식은 '공유 역사'의 관점으로 해석 가능하다. 하나의 대상에 대해 복수의 역사를 상상하는 '공유 역사'의 다원적 특성과 사회적 효과는 '리질리언트 바이 디자인'에서 강조하는 사회생태성 및 사회적 평등과 긴밀하게 연동한다. 자연과 인간의 공유 역사는 인간이 기후 변화의 위기를 자연의 탓으로 돌리지 않고 성찰하는 시각을 갖게 한다. 집단 사이의 공유 역사는 주류 역사에서 소외되어온 취약 계층에 주목함으로써 리질리언스의 증진이 사회적 평등과 결부되어 있음을 깨닫게 한다. 이상으로 살폈듯 '리질리언트 바이 디자인'에서 '공유 역사'는 앞의 도구인 동시에 깨달음과 행동의 도구로서 중요한 위상을 차지한다.

참고문헌

1. 박주현, 진재관(2013) 공유된 과거와 소수자 다루기: 영국 역사 교수학 습 사례를 중심으로, 역사교육 128: 113-134.
2. 이병련(2015) 역사교육에서의 다원적 관점 이론, 사총 84: 183-223.
3. 최혜영, 서영애(2018) 리질리언스 개념을 통해서 본 설계 전략과 과정, 한국조경학회지 46(5): 44-58.
4. Arup(2014) City Resilience Framework, Updated December 2015, Rockefeller Foundation.
5. Bay Area Resilient by Design(2017) Briefing Book, Trust for Conservation Innovation.
6. Bowman, T.(2015) Negotiating conquest: Internal colonialism and shared histories in the South Texas Borderlands, Western Historical Quarterly 46(3): 335-353.
7. Costanza, R., L. Graumlich, W. Steffen, C. Crumley, J. Dearing, K. Hibbard, R. Leemans, C. Redman, and D. Schimel(2007) Sustainability or collapse: What can we learn from integrating the history of humans and the rest of nature? Ambio 36(7): 522-527.
8. Halbwachs, M.(1950) La Mémoire Collective, Paris: Universitaires de France. trans. Francis J. D. Jr. and Vida Y. D.(1980) The Collective Memory, New York: Harper & Row.
9. Onuoha, G.(2016) Shared histories, divided memories: Mediating and navigating the tensions in Nigeria - Biafra War Discourses, Africa Today 63(1): 2-21.
10. Public Sediment(2018) Public Sediment For Alameda Creek, Volume II, Resilient by Design Bay Area Challenge.
11. Resilience Alliance(2007) Assessing and Managing Resilience in Social-Ecological Systems: A Practitioners Workbook, www.resalliance.org
12. Scham, P., W. Salem, and B. Pogrud(2005) Shared Histories: a Palestinian-Israeli Dialogue, Walnut Creek, Calif: Left Coast Press.
13. <https://sharedhistory.eu/> (2020, 2. 24)